

# 1983년 실은 결핵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실이다

## 1. 1983년 실의 특징

[실 도안의 내용] 1983년은 대한결핵협회가 창립 30주년(1983.11.6)이 되는 해이므로, 당시 발행된 실을 살펴보면 한국의 야생동물 9종에다 협회 창립 기념용 실 1종을 추가하여 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지를 보면 한국의 야생동물 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동저고리 여아 모습의 실을 1매 배치한 것은 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림 1] 1983년 실 (기념실/호랑이/멧돼지/여우/곰) : 전지 좌측 5매



[그림 2] 1983년 실 (족제비/산양/노루/너구리/늑대) : 전지 우측 5매

자연보호 시리즈 실에는 1977년 발행된 야생조류(자연보호 시리즈 I), 1978년 발행된 자생꽃(자연보호 시리즈 II)이 있으며, 이후 1983년에 발행된 야생동물 실은 자연보호 시리즈 III에 해당하며(보건세계;크리스마스 실 야화 22회) 발행 당시 1매당 액면가는 60원으로 책정되었다. 야생동물 9종은 호랑이, 멧돼지, 여우, 곰, 족제비, 산양, 노루, 너구리, 늑대로 한국에 자생하는 토종 야생동물을 도안한 것으로 이 중 호랑이, 여우, 늑대는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상태이다.



[그림 3] 1983년 발행분



[그림 4] 1953년 발행분

아울러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철 인면(그림 3)은 1953년 12월에 발행된 협회 최초의 철 인면(그림 4)을 손질한 것으로 두 철을 상호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1983년의 창립 기념철에는 발행 연도(1983) 표시가 없고 “결핵협회 최초의 철”이라는 문구와 “1953”의 연도표시가 있는 관계로 비우취인(非郵趣人)이 운영하는 많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Blog)를 방문해 보면 이 철을 1953년에 결핵협회가 발행한 최초의 철로 등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953년 철의 도안은 당시 체신부 소속의 우표 디자이너 1세대인姜春환(姜春煥)이며, 1983년 기념철의 도안은 당시 한국조폐공사 디자인실 소속의 오동환(吳東煥)으로 1970년(골목놀이), 1977년(자연보호-야생조류), 1995년(남해바다의 신비)의 철을 도안한 전문 디자이너이다.



[그림 5] 상발형



[그림 6] 상우발형



[그림 7] 하우발형

**[철 전지의 구성]** 철 전지는 50매(10×5)로 구성되고 10종씩 5줄로 되어 있으며 각 코너 별로 제자(題字; 변지에 발행목적이나 표어 등의 문구가 인쇄된 것)가 인쇄되어 있다.

제자로 인하여 도안자, 인쇄소, 발행기관 및 철의 성격에 대해서 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으므로 변지에 인쇄된 제자는 철 수집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철 전지의 천공분류는 3종류로서 상발형(上拔形), 상우발형, 하우발형이 있으며 2코너를 예를 들면 다음 그림과 같다.

상발형(그림 5)은 상변지만 변지 끝까지 천공된 상태이며, 상우발형(그림 6)은 상변지와 우변지가 끝까지 천공이 된 상태이다. 이에 비해 하우발형(그림 7)은 하변지 및 우변지가 끝까지 천공이 되어 있으므로 상변지는 (그림7)과 같이 변지 중간까지만 천공이 되어 있다. 필자는 1983년 철 전지 중 거터(Gutter ; 철 인면과 인면 사이)를 청색으로 인쇄하여 각 인면의 4면 천공부분이 청색선으로 되어 있는 전지(그림 8)를 보유하고 있다. 청색선은 인쇄과정에서 전지의 천공자리



【그림 8】 1983년 전지(천공자리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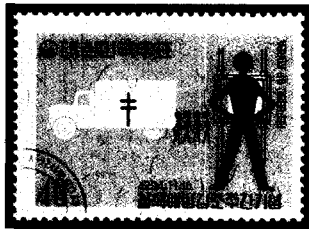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맨 좌측의 기념썰은 인면 주변에 청색 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확정된 야생동물 도안에 기념썰을 추가하여 전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념썰은 청색선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그림 8)의 전지는 인쇄과정 중 사용된 인쇄 중간단계 품목이 잔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 2. 협회 창립 기념우표

결핵협회 창립 기념썰로는 1983년의 30주년 기념썰이 유일하나, 이에 반하여 우표의 경우는 결핵협회 창립 기념으로 10주년(발행 1963.11.6), 30주년(1983.11.6.), 50주년 기념우표(2003.11.6)의 3종이 발행되었다.



【그림 9】 창립 30주년 기념우표



【그림 10】 결핵예방강조 기념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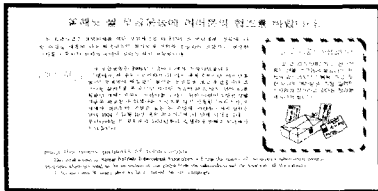
【그림 11】 결핵퇴치기념 부가금우표

창립 30주년 기념우표(그림 9)는 홍혜원의 도안으로 건강한 폐를 상징하는 나무를 그린 것으로 액면가는 70원이다. 결핵협회 창립 기념우표 3종은 인면에 복십자마크 표시가 있으며 이외에도 복십자 마크 표시가 있는 대한민국 우표는 (그림 10)의 강춘환이 도안한 결핵예방강조 기념우표(1961.11.16 발행)와 (그림 11)의 김용배가 도안한 결핵퇴치 기념 부가금 우표(1974.11.1 발행)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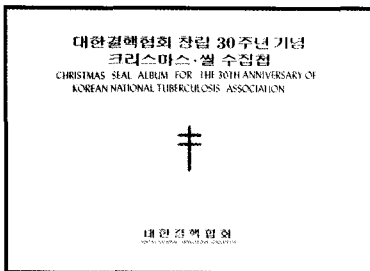
우표는 창립기념우표가 3종이나 발행되었으나 오히려 썰의 경우 창립 기념용 썰이 현재까지 1종만 발행되었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으며, 환감에 해당하는 창립 60주년인 2013년의 썰은 협회 창립 60주년을 반영한 기념썰이 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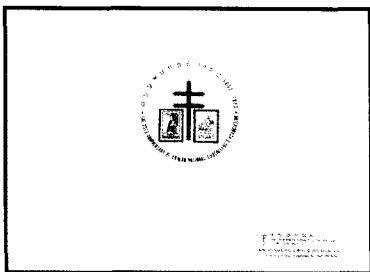
[그림 12] 씰폴더(앞면)



[그림 13] 씰폴더(뒷면)



[그림 14] 씰수집첩(앞면)



[그림 15] 씰수집첩(뒷면)

### 3. 1983년 씰 폴더 및 기념씰 첩

**[씰 폴더]** 씰 폴더란 씰을 판매할 경우 씰을 담을 수 있는 포켓으로 발행량이 매우 적어 오래된 씰 폴더는 씰보다 수집하기가 훨씬 어려운 품목이다. 1983년의 씰 폴더(232×114mm)의 앞면 그림은 씰 10매를 원형으로 배치한 후 전지 1코너에 게재한 “내가산 크리스마스·씰 결핵을 없앤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며 당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소재한 협회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후면에는 씰 모금에 대한 안내문과 씰의 유래가 인쇄되어 있다.

**[씰 팸플릿]** 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림 14)와 같은 씰 수집첩(240×170mm)을 증정용(비매품)으로 500부 한정 제작하였으며 씰 수집첩은 두꺼운 전용의 종이봉투에 담겨져 있다. 당시, 결핵협회에서는 창립 30주년 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수상자 및 응모자 전원에게 수집첩을 증정하였으며 이는 수집하기 매우 어려운 품목이다. 모두 8페이지의 수집첩은 일종의 기념 씰첩으로 내용은 1983년 씰 및 창립 30주년 기념 우표, 기념우표의 초일봉피, 1950년대(1954.1955.1956.1958.1959년), 1960년대(1960.1962.1963.1964.1967년), 1970년대(1971년), 1980년대(1980.1981.1982년)의 씰이 첩부되어 있다.†

#### 참고자료

- 대한결핵협회 30년사(1983.12.31) 대한결핵협회 간행
- 씰 야화 제22회 (보건세계) 이창성
- 우표포털([www.kstamp.go.kr](http://www.kstamp.go.kr))

이 글을 쓴 남상욱(halon21@chol.com)님은 씰 수집가로 서초우취회 부회장 및 우리협회 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